�� 『말과 권력』 시리즈 1권

머리말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이 입을 열기 전,

이미 몸은 말하고 있었다.

표정, 손짓, 눈빛, 그리고 침묵.

말보다 먼저 도착한 것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들.

그런데 왜 굳이 입을 열었을까?

왜 소리를, 왜 이름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달되지 않는 감정,

통하지 않는 마음,

놓쳐버린 표정 하나가

관계의 틈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소리를 냈다.

의도를 담고, 뜻을 붙이고, 규칙을 세웠다.

그 규칙은 곧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질서’를 만들었다.

질서는 ‘기준’을 만들고,

기준은 ‘위계’를 낳았다.

그리고 그 위계는

어느 순간부터 ‘권력’이 되었다.

말이 탄생한 순간,

그 말은 이미 권력을 품고 있었다.

�� 제1장. 말할 수 있는 자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말을 한다는 뜻일까,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일까,

말을 할 줄 안다는 뜻일까?

고개를 끄덕인 당신은

그 셋이 다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건 아주 옳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있는 자'인가?

아이들이 손을 든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질문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손을 드는 행위가 말의 권리를 만들어낸다.

혹은, 손을 들어도 외면당하면

그 말은 허락받지 못한 말이 된다.

이런 일이 어른의 세계엔 없을까?

회의실, 병원, 가정, SNS...

당신의 말은 언제 허락받았는가?

아니, 누가 그 허락을 줄 수 있었는가?

말에는 언제나 문이 있다.

말은 문을 여는 열쇠 같지만,

때론 문턱처럼 작고 단단한 장벽이 된다.

말이 많다고 권력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을 ‘할 수 있는가’와

말이 ‘들리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혀와 입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

허락받고,

기록되고,

반응을 일으키고,

의미를 남길 때,

비로소 말은 권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첫 장에서

이 질문을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자란 누구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은 언제 권력이 되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책을 덮더라도,

독자 각자는 자기 안의 ‘말’을

조금은 다르게

툭,

툭,

던지게 되리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말이 권력이 되는 순간은.

�� 제2장. 말은 왜 권력을 원하게 되는가

말은 본래 살아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돌고, 튕기고, 퍼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은 '목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어졌고,

설득하고 싶어졌고,

무릎 꿇게 하고 싶어졌고,

때론 칭찬받고,

때론 용서받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이 출세하려는 것처럼.

말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 하고,

다른 말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은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떤 말은 금기가 되고,

어떤 말은 법이 되고,

어떤 말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순수한 말'로 남기 어렵습니다.

말은 자꾸 힘 있는 말을 닮아갑니다.

칭찬받은 말,

상 받은 말,

회자되는 말,

출판되는 말,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은 말...

그 말이 기준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말은, 진짜 나의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고른 말인가?"

그러니,

말은 때때로 거울보다 더 잔인합니다.

자기 얼굴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얼굴을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원래 도구였습니다.

전달을 위한, 표현을 위한, 함께 살기 위한.

근데 어느 순간,

말이 스스로 목적이 되었습니다.

말이

사람 위에 올라탔고,

사람보다 더 무거워졌으며,

사람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말 한 마디가

누군가를 웃기고,

누군가를 울리고,

누군가를 죽입니다.

말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에게 권력을 부여한 겁니다.

왜냐고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요.

"그때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말이 다 망쳤지."

이런 식으로

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순간들,

우리, 다 경험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말을 쥐려 합니다.

말을 관리하려 합니다.

말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

말을 쥐면 사람을 쥘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말은 점점 ‘힘’을 입고,

권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은 말을 감시하고,

말을 관리하고,

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말을 자유롭게 두면 위험하다고?

그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권력의 본질이죠.

�� 제3장. 말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말할 수 없게 만든 자

말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닫혀 있는 것,

말이 되어도 뱉지 못하는 것,

듣는 이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말할 수 없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말을 잃었다.”

“말이 막힌다.”

“도무지 할 말이 없다.”

그런 순간들에는

마음이 터져도,

입은 굳게 닫히고,

말은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왜?

누군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어쩌면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라는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말하는 자 자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치면 어쩌지?"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이

내 안의 말을 묶고,

말을 꺼내기 전에 지워버립니다.

�� 제4장 – 말의 자격, 권력의 그림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도 말한다.

술 취한 이도 말한다.

로봇도, 이제는 말한다.

그러나 그 말에 ‘권위’가 실리는 순간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뿐이다.

예를 들어, 말의 높이.

그 사람이 서 있는 지위.

그의 배경, 학위, 외모, 말투, 억양, 성별, 심지어 태어난 지역까지.

그러니 다시 묻는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떤 말은 무시되고, 어떤 말은 기록되는가?

어떤 말은 회의록에 남고

어떤 말은 메아리처럼 흩어진다.

어떤 말은 뉴스가 되고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된다.

말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 제5장 – 말 위에 선 말, 침묵 위에 선 권력

권력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혹은 전혀 말하지 않음으로 드러난다.

그 침묵이 공기처럼 무겁고,

그 눈빛이 칼처럼 날카롭고,

그 무반응이 지시처럼 작동할 때,

우리는 안다.

말이 없어도 말이 존재한다는 걸.

그러나 말 위에 선 말이 있다.

그것은 명령이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말,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말,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위에서 말은 위축되고

권력은 뿌리 내린다.

그렇게 ‘말’은

다시 ‘복종의 언어’가 되고 만다.

�� 제6장 – 말로 낳고 권력으로 기른다

처음엔 말이었다.

툭— 던져진 한마디.

그 말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질문이 되었으며,

그 질문은 언젠가 구조가 되었다.

누가 말했다.

“아이들은 듣는 대로 자란다.”

그렇다.

권력도 듣는 대로 자란다.

말로 길러진다.

칭찬으로, 훈계로,

가르침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포장으로.

때로는 그 말이 진심이었고,

때로는 그 말이 전략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말은 권력을 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권력이 또 다른 말을 낳는다.

에필로그 – 말의 뿌리, 권력의 열매

말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말은 자라기도 한다.

그 말이 자라 어디까지 뻗는지, 누구에게 엉키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열매 맺는지는,

이제 ‘말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인 자’의 세계다.

한마디는 씨앗이다.

그 씨앗은 듣는 이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받아들이는 자는, 심는 자이기도 하다.

그가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씨앗은 꽃이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라지 않는다고 말이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은 흙 속에 잠든 씨앗처럼

어떤 계절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작자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말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놓아주는’ 자다.

권력을 쥐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내어주는 자다.

말은 뿌리이고,

권력은 그 말에서 맺는 열매다.

그 열매를 따는 자는

말한 자가 아니라,

들은 자다.

그러니 말한 자는 안다.

자신의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안다.

자신이 심은 것이

언제 자랄지는 모른다는 것을.

계절도, 시간도, 순간도 아닌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또 안다.

자신이 심은 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툭.